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지역발전 기여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Contribution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 Public Library to Local Development: Focused on Cases of Busan City

윤 희 윤 (Hee-Yoon Yoon)*

김 경 희 (Gyoung Hee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분석과 지역발전 기여 |
| 2.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이해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 진로설계를 연계한 교육정책으로서 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제도가 2016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도 자유학기제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설·제공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논증했다. 그 결과, 진로·직업탐색, 진로탐방·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에 기여했다. 다만, 진로·직업탐색 중 강연·전시와 직업체험, 정보해득력 제고가 여가문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생태계 구조, 디지털 정보격차, 인문치유, 사회환경 문제, 미래 직업상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보해득력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focuses on the activation of career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an educational policy that links career recognition in elementary school, career search in middle school, and career planning in high school. This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in 2016 and public libraries also provided various programs. This study analyzed the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city and demonstrated the contribution of local development. As a result, career and job search, career exploration and experience, and information literacy enhancement programs contributed to local knowledge culture, reading culture, learning culture, living culture and leisure culture. However, contribution of reading exhibitions, job experience, information literacy enhancement to the leisure culture and local economy were limited.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all libraries should add programs related to knowledge ecosystem structure, digital information gap, human healing, social environment issues, future job prospects, and provide information literacy programs.

키워드: 자유학기제, 청소년, 공공도서관, 지역문화, 지역발전

Free Learning Semester, Young Adults, Public Library, Local Culture, Local Development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제1저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mo1596@hanmail.net / ISNI 0000 0004 7641 648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9년 3월 28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5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5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29-48,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2.02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급과 동서를 막론하고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모바일,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21세기에 국가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소년 양성에 두어야 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에 대비하여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교육정책을 구사하여 왔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역량강화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입시 경쟁이 촉발한 암기 주입식 교육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2009년부터 정부는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역량인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확장 등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과 스포츠 클럽활동에 이어 진로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진로인식,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인 중학교의 진로탐색, 고등학교의 진로설계를 연계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대표하는 정책이 '자유학기제'이다.

2013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6년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공공도서관에도 적용되었다. 많은 개별도서관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개설·제공했고, 대표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도 '길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자유학기제 연계형 20개관, 2018년 자유학년제 23개관을 지원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

보센터, 문화활동 거점, 평생학습 산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다양한 장서, 전문 인력, 자주적 학습공간을 갖추고 있어 자유학기제 기본취지인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 고차원 사고력 함양, 자기주도형 미래 설계 등에 필수적인 독서활동과 지식습득을 촉진하고 집단별 토론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시설이다. 그럼에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는 당위성과 모형 개발에 치중할 뿐 사회적 합의와 영향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를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조사대상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유형을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도서목록 및 서평집 배포, 독서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지역 역사문화탐방, 사서직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조사,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적용 사례, 자유학기제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정보에는 문헌조사 방식을 적용한다. 각종 문헌(정책자료, 연구조사 및 평가보고서, 사례자료집, 학술논저, 통계데이터,

인터넷 정보, 신문기사 등)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의 함의와 중요성, 주요 동향, 지역발전과의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분석에는 사례조사 방식을 적용한다. 그 대상을 부산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2014년 사하도서관, 글마루작은도서관, 2015년 중앙도서관, 2016년 시민도서관에 이어 2018년 부산시 전역의 공공도서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 이래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한 후 관련 자료가 수록된 계간지, 홈페이지,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부족한 내용은 도서관 방문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보완하여 내용과 특징, 제시된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다.

셋째,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2018년 2월에서 5월까지 중앙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참여자, 중학생 190명+교사 8명) 운영 경험을 더해서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도서목록 및 서평집 배포, 독서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지역 역사문화 탐방, 사서직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으로 대별한 다음 지역문화의 스펙트럼(윤희운 2015, 6)을 준용하되 지역경제를 추가하여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의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자 및 참여자의 만족도 내지 기여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추가될 때 일반화가 가능하다.

1.3 선행연구 개관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제도다. 이를 공공도서관에 적용한 사례와 지역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의 경우, 노영희와 김혜인(2016, 93-122)은 3개 관중(학교, 공공, 대학) 사서의 인식도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제공은 역할 확대 기회로 인식한 반면에 예산부족은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고 전담 인력 구성과 책임감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경(2017, 49-76)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주요 교육 인프라인 학교도서관과 교육 파트너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내 교육 인프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숙과 김수경(2016, 99-128)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도서관기반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4가지 활동모형(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주제선택)을 개발했다. 그 외 연구로는 공공도서관 진로독서교육(임미화 2014, 29-55), 공공도서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이재희 2016, 86-105)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상관성 연구의 경우, ICMA(International City / County Management Association)는 공공도서관이 지방정부 및 지도자와 우호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요 현안인 정보해득력, 공공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적 다양성, 경제발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주민과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제시했

다(Joanna and Pertti 2015, 209-219). 또한 Marino와 Lapintie(2015, 118-129)는 공공도서관이 창조성, 혁신, 새로운 산업의 공간적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결합과 시민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희운(2015, 1-20)은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발전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한계를 적시한 후, 지역문화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여 전략으로 '장서개발과 이용서비스 중심의 핵심역량 제고,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지원기능 강화,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촉진과 저변확대,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 제공서비스의 최적화, 시설·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증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이상에서 개관한 선행연구는 공공도서관에 자유학기제를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과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외연 확장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증할 때 지식정보센터, 문화활동 거점, 평생학습 산실이라는 사회문화적 역할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다.

2.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이해

2.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함의와 중요성

자유학기제 배경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Transition Year), 영국의 갭이어(Gap Year),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Efterskole), 스웨덴의 진로체험(Career Exploration) 학습, 일본의 직장체험활동,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CAS(Creativity, Action, Service),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등이다. 이들에 주목한 정부는 2013년 교육 패러다임을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진학지도 중심에서 진로지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2013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16년에 전면 시행된 것이 자유학기제¹⁾이며, 그 성과 및 확대 요구로 2018년에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지식정보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핵심역량 교육을 강조하는데 있다. 그 대상을 중학교 1-2학년(한 학기, 두 학기, 자유학년+2학년 1학기 연계)으로 설정한 이유는 중학생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로발달 4단계(인식, 탐색, 결정, 전문화) 중 탐색단계에 위치하며, 자신의 삶과 진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체와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고 많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지원청 등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체험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각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대학, 도서관, 박물관, 평생학습관, 기타 많은 민간기구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자유학기제 내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1) 2015년 11월 25일자로 교육부는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하나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당위와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 이래로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의 미래 설계,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취업준비 지원 등을 통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도서관이 집적한 지식정보, 독서지도와 독서회 운영,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학습공간 제공 등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

둘째, 최근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유통에 이어 모바일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창조공간, 체험·실험실, 제3의 사회적 장소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변신에 몰두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리모델링과 카페 같은 공간구조 창출, 이용계층별 전용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 수용,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디지털 가시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활동, 지식정보 습득, 사서와의 대화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데 적합한 체험학습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장소다.

셋째,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러

면 그들의 진로탐색에 최적화된 지식정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은 교육학습자료, 대학도서관은 학술연구정보를 서비스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에 모든 지역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 공공도서관은 생애주기별 지식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 등 청소년은 공공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기르고,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학습과제를 수행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며, 상담서비스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다.

넷째, 가장 현실적인 중요성은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연령대별 이용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이용률은 공공도서관(16.1%), 박물관(10.8%), 시군구민회관(9.8%), 복지회관(7.0%), 문예회관(5.5%), 청소년회관(3.5%), 문화원(2.4%), 문학관(0.5%)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도 <표 1>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111). 그들은 자료를 대출하고 친구를 만나며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표 1> 국민의 문화예술 공간별 이용률(복수 응답, 단위: %)

연령	문화 시설	공간 전체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대학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공연장
15-19세		73.9	11.1	7.9	7.3	19.7	1.7	33.0	23.8	1.2	0.7	1.8	4.5	5.1	13.7	31.9
20대		70.8	6.6	9.3	1.1	4.4	2.5	23.4	20.3	0.9	1.7	0.5	6.7	8.1	15.5	37.6
30대		65.9	10.2	8.2	2.9	3.1	1.9	15.1	18.3	0.6	2.2	0.3	1.7	10.0	26.0	32.1
40대		67.0	12.8	8.5	3.9	2.8	1.3	13.8	19.3	0.4	2.3	0.2	1.9	7.9	31.4	27.2
50대		62.4	13.6	8.4	6.7	2.1	2.1	6.7	13.3	1.0	1.7	0.4	0.9	6.9	36.6	20.3
60대		64.5	18.4	6.8	16.1	1.2	1.8	4.5	13.4	0.2	1.5	0.1	0.9	4.1	41.2	19.0
70세 이상		63.0	18.6	5.8	34.6	1.3	0.9	1.5	8.5	0.1	0.9	0.3	0.8	1.4	42.6	10.5
계		66.2	12.8	8.0	9.0	3.6	1.8	12.8	16.5	0.6	1.7	0.4	2.3	6.7	30.4	25.7

공공도서관을 자주 찾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학교와 조율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심리적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

2.2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주요 동향

2013년 자유학기제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공공도서관도 자유학기제에 부합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정독도서관은 청소년 특화자료 구축과 21개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서들이 연합해 개발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를 제공하고, 2015년 청소년관을 개설한데 이어 2018년에는 관내 역사적 상징물을 활용한 견학프로그램인 ‘정독도서관 산책’, 직업체험프로그램인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사고력·논리력·비판력 향상을 위한 독서논술교육프로그램인 ‘북촌 청소년 로고스’를 개설했다. 2015년 부천시립원미도서관은 부천시 지원으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연계형 프로그램은 2015-2016년 한국도서관협회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중 특별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5년에는 총 14개 공공도서관²⁾이 참여했다. 8개관

(57.1%)은 1차시 프로그램만 운영했고, 12개관(85.7%)은 학교와 연계·진행했으며, 프로그램 일수는 2-3일이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은 3.4일이었다. 이어 2016년에는 총 7개관³⁾이 참여했는데, 그 중 6개 도서관이 2차시 이상을 운영했고, 3개관이 2개 이상의 학교와 연계했다. 프로그램 진행 일수도 평균 7.7일이었다. 2017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 20개관이 자유학기제 연계형 프로그램(한국도서관협회 2017, 374-424)을, 2018년에는 그 명칭을 자유학년제로 바꾸고 23개관을 대상으로 연계형 프로그램⁴⁾을 운영했다. 각각의 주체와 프로그램 명칭을 집계하면 <표 2>와 같다. 전술한 2015-2016년과 비교하면 2017-2018년 프로그램에 일부 대학도서관(신라대, 조선대, 한성대, 성경대)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지만, 주제는 인문학 일색일 정도로 자유학기제의 취지나 목적과 괴리가 있었다.

한편 부산지역의 경우, 2014년 취입특성화도서관인 사하도서관이 지역 전문가(도서관 전문강사, 동화작가·극작가, 화가·그림책 작가, 출판사 대표, 지역문화해설사 등) 등과 협업하는 형태로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4년 글마루작은도서관의 ‘지역사회 토요일스쿨: 길 위에서 만난 어린 인문학자’ 프로그램에는 진로를 탐색 중인 청소년(4명, 분반 선생님 역할)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2015년에는 중구 중앙도서관의

2) 경남창원도서관, 구미선산도서관, 춘천교육문화관, 경기희망샘도서관, 경기태장마루도서관, 부천시립북부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대구수성구립용학도서관, 서울용산도서관, 서울상도국주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서울개봉어린이도서관, 경북영천금호도서관, 천안성환도서관.
 3) 경남김해장유도서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충남장항공공도서관, 강원양양교육도서관, 광주운남어린이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서울강서도서관.
 4) 한국도서관협회 2018.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지원대상도서관 선정 공고문(2018. 05. 03). [online] [인용 2018. 10. 31.] <<https://www.libraryonroad.kr/>>

〈표 2〉 한국도서관협회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지원(2017-2018)

2017년 자유학기제 연계형(20개관)		2018년 자유학년제 연계형(23개관)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개봉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세상 돌보기”	개봉도서관	도시의 (재)생(공)생 인문학
서울개포도서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과학적 발상과 인문학적 통찰의 만남	한성대학술정보관	삶과 역사가 공존하는 우리 마을 인문학
서울용산도서관	인문학, 손 끝에 스며 들다	대구서부도서관	낙동강을 타고 온 피아노, 이야기를 담다
신라대도서관	바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	대전도서관	미래를 디자인하는 인문학, 미술
대구대봉도서관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을 찾아서	동양도서관	똑똑! 인문으로 여는 꿈
광주일곡도서관	숲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북구도서관	4차 산업혁명시대,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조선대중앙도서관	로드 인 광주: Road in Gwangju	조선대중앙도서관	Trend Reader (人) in 광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을 중심으로
관평도서관	청소년, 인문학을 만나다	대전산성도서관	청소년, 인문학으로 미래를 다(多)잡(Job)다!
대전산성도서관	대전+인문학, 청소년의 마음을 잡(Job)다.	울주도서관	어서 와! 철학은 처음이지?
울산신북도서관	청소년, 인문학에 울산을 담다	만화도서관	본격! 만화책 보는 중학생
울주도서관	이야기가 흐르는 하늘 여행	성결대술정보관	내일을 품은 인문학
경기성남도서관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사색(四色) 인문학	안양삼덕도서관	도서관에서 찾은 나의 꿈, 나의 직업
과주법원분관	건축과 자연으로 과거의 과거와 미래를 보다	과주문산분관	과주의 역사 속 인문학 산책
횡성교육도서관	인문학, 여사매로(路) 짚고 영화로 피어나다	강릉교육문화관	커피의 고장 강릉, 유튜브에 담다
강내도서관	청소년의 이름다움과 인문학	삼척교육문화관	인문학,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공주유구도서관	교과서를 나온 공주	태백교육도서관	청소년, 한강의 발원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천안성환도서관	미래를 탐하는 청소년 인문학	횡성교육도서관	방송 Me디어, 횡성을 밀착 취재하다!
익산모현도서관	인문학!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청주시립도서관	일상을 기록하다: 영화, 연극, 사진
경북풍산분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라!	천안성환도서관	도서관에 길을 묻다, 별★꿈 job기
남해도서관	남해바다, 내 꿈의 인문학	익산모현도서관	인문학, 길 위에서 웹툰을 만나다
-	-	영광공공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
		거제하청도서관	14살, 길 위에서 꿈을 쏘다
		합천도서관	글과 그림으로 찾아가는 나의 행복

‘중구문화해설사 양성과정’(기초17·심화20·전문가13 차시) 중에 학습자들이 동아리를 형성하여 ‘청소년, 꿈찾기 원도심 기행’을 계획·운영했다. 2016년에는 시민도서관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서 중심의 ‘체험형’과 청소년 자발적인 ‘동아리형’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그 외에 구포, 금정, 북구디지털, 사상, 영도 등 공공도서관은 중학생 대상으로 독서토론, 글쓰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부산지역 자유학기제프로그램을 〈표

3〉과 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3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지역발전의 관계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이 개설·제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사서직의 열정적 의지와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각계 전문가가 동원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학교당국의 적극적

〈표 3〉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8년 하반기)

	지역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1	진구	시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2	진구	부전	'사서'의 꿈길을 찾아서
3	중구	중앙	찾아가는 독서교실 프로그램
4	북구	구포	도서관에서 나의 꿈 찾기
5	해운대구	해운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과의 대화
6	해운대구	반송	진로탐색 도서 전시회
7	서구	구덕	도서관과 함께 행복찾기
8	금정구	서동	책 속에서 나의 꿈 찾기
9	사하구	사하	내 아이 꿈 찾기 진로 코칭 특강
10	연제구	연산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책 속 나의 꿈 찾기』
11	동래구	명장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도서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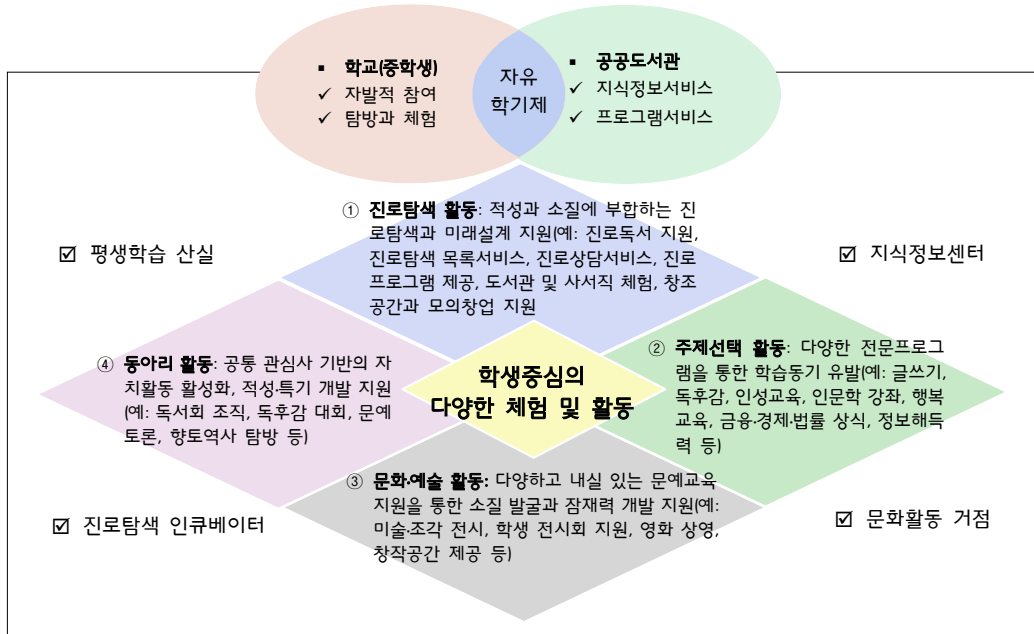
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사회구성원인 학생의 진로탐색과 선택, 미래 세대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미치는 효과, 독서활동 촉진 및 저변 확대, 평생학습문화 조성, 지적 생활과 여가 선용, 지역문화 발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명칭과 내용을 불문하고 청소년의 지식탐구, 독서활동, 진로탐색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고 공공도서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사계 전문가, 초청강사, 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등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학생에게는 진로탐색과 독서흥미 유발 등에, 교사와 전문가

에게는 도서관 이해와 인식 제고에, 전문가에게는 일자리 창출에, 도서관 인력에게는 존재감 및 협력 마인드 제고에 기여한다. 더 확장하면 자유학기제는 시차를 두고 도서관 이용, 독서문화 조성, 평생학습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이해 등을 포괄하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표방하는 4대 자유학기 활동영역을 공공도서관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공공도서관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이 탐방 및 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진로독서와 모의창업 등을 통한 진로탐색, 인문학 강좌와 정보해득력 등의 주제선택, 전시회 지원이나 영화상영 및 창작공간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독서회와 문예토론 등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그 결과로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 문화활동 거점, 평생학습 산실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에 진로탐색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이 추가되어 위상과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림 1〉 자유학기제 활동영역과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

요컨대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진로탐색 뿐만 아니라 도서관 외연 확장에 일조할 수 있다. 다만, 잠재적 이용집단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강좌 위주를 탈피하여 자발적 참여와 체험을 강조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처럼 인문학과 강의 중심으로는 청소년의 사고력 확장, 창의성 개발, 진취적 기상을 촉진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지식관문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통과 공론을 위한 제3의 사회적 장소로 자리매김할 때 공공도서관의 궁극적 지향성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인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윤희운 2017, 39)가 정당화될 수 있고 지방공공재로서의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다.

3.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분석과 지역발전 기여

부산시 행정구역은 15개 구와 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말 인구는 3,494,019명이다. 이러한 행정구역 및 인구에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은 총 40개관이다. 운영주체별로는 기초자치단체 소관이 26개관이고, 교육청 소관이 14개관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개설·운영한 프로그램을 사례를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도서목록 및 서평집 배포와 전시, 독서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지역 역사문화 탐방, 사서직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3.1 진로·직업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3.1.1 도서목록 및 서평집 배포, 전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를 포괄하는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다. 그 중에서 자유학기제와 가장 밀접한 문화영역 중의 하나가 독서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가운데 4개관(시민, 구포, 반송, 명장)이 <표 4>와 같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민도서관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읽는 자유학기제를 위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도서 목록’을, 구포도서관은 소장자료 중심의 ‘청소년 진로·직업 도서목록’을 자체 제작·배포했다. 또한 반송·명장도서관은 자유학기제 관련 도서목록을 전시회를 통해 제공했다. 반송도서관은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진로탐색도서 107종으로 ‘진로탐색 도서 전시회’를, 명장도서관은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도서 30종을 서평과 함께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도서 전시회’를 운영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배포, 전시한 도서목록 및 서평집은 자료

전문가인 사서직이 진로탐색 및 체험에 유익한 도서를 엄선·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독서흥미 유발, 독서촉진, 진로탐색에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부산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1.2 독서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자유학기제의 궁극적 목적은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체험에 방점을 두고 진로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공공도서관이 부응하려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요체인 학습, 강연, 탐방과 체험, 각종 행사 등을 주관하고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중학생의 진로 및 직업탐색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례는 취업정보특성화를 표방한 사하도서관의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여행’이 대표적이다. 2014-2017년에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014년에는 4차시(자기이해와 가치관, 진로 관련 도서관 정보, 진로체험, 진로실천)를 운영했고, 2015년에는 3차시(진로탐색과 설계, 진로독서, 진로실천과 탐방)를, 2016년에는 2차시(진로탐색과 설계, 진로실천과 탐방)로, 2017년에는 신청한 학교로 가서 1차시(찾아가는 자유

<표 4>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직업 탐색용 도서목록 및 서평집’ 배포와 전시(4개관)

구분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배포	시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도서목록 자료집 제공
	구포	도서관에서 나의 꿈 찾기	• 소장자료 중심 청소년 진로직업 도서 목록 배포
전시	반송	진로탐색 도서 전시회	•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진로탐색 도서체험의 기회 제공(‘영화로 진로를 디자인하라’ 외 106종)
	명장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도서 전시회	• 다양한 직업소개 도서 30종(서평 포함)

〈표 5〉 자유학기제 연계형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여행’ 프로그램(사하도서관)

구분	차시	제목	세부내용	비고
2014	1	(자기이해와 가치관) 나 ! 이런 사람이야	•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 / 나다움의 꿈과 진로찾기 / 올바른 가치관과 진로관	• 강사: 동화작가·극작가
	2	(진로관련 도서관정보) 도서관 ! 진짜야	• (목록: 7~10책) 북 토크 / 진로 관련 정보원 소개 / 미래유망직업, 직업카드소개 / 진로찾기 발상전환법	• 강사: 도서관 전문강사
	3	(진로체험) 멘토 ! 만나는 거야	• 미래직업전문가와의 만남 / 진로성취, 진학, 공부 과정 / 진로관련 직업군	• 강사: 동화작가·일러스트 전문가(5월) ; 출판전문가(6월)
	4	(진로실천) 나 ! 디자이너야	•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종류 / 진로포트폴리오 만들기 / 결과물과 소감 나누기	• 강사: 도서관 전문강사
2015	1	(진로탐색과 설계) 도서관에서 그리다	• 도서관의 이해 / 자유학기제와 자기주도성 / 꿈 지도 그리기	• 강사: 문화콘텐츠연구회(협업)
	2	(진로독서) 책에서 탐색하다	• 자유학기제와 진로독서 / 진로 북 토크 / 책 소개 포스터 만들기	• 강사: 문화콘텐츠연구회(협업)
	3	(진로실천, 탐방) 마을에서 꿈꾸다	• 마을활동가가 들려주는 우리마을이야기 / 우리마을 속 직업이야기 / 직업체험(선택사항) / 꿈의 낙조분수 음악 감독 / 물론대 정운공순의비 직업군인	• 강사: 지역문화해설사(협업) • 1코스: 다대포·물운대 • 2코스: 감천문화마을
2016	1	(진로탐색과 설계) 도서관에서 그리다	• 도서관의 이해: 우리 고장, 사하이야기 / 도서관 200% 활용과 진로독서(북 토크) / 꿈 지도 그리기	• 강사: 문화콘텐츠연구회(협업)
	2	(진로실천, 탐방) 마을에서 꿈꾸다	• (마을활동가·컴퓨터전문가·지역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우리마을 속 진로직업이야기 • 직업체험(선택사항)	• 강사: 지역문화해설사(협업) • 1코스: 다대포·물운대 • 2코스: 감천문화마을 • 3코스: 을숙도
2017	1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도서관을 배우다 / 진로를 탐색하다	•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 / 책과 정보는 어떻게 찾아서 활용할까? / 사서와 진로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 역사 속에서 직업 변천은 어떠했을까? / 나의 진로직업을 탐색해볼까? / 진로직업 북아트	• 강사: 독서·교육콘텐츠 개발 전문가

학기제)로 운영했다. 각각의 과정에는 매년 4개 교가 참여했다.

그리고 사하도서관 외 7개관은 〈표 6〉 처럼 진로탐색을 위한 독서토론과 강연(특강) 등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4개관(시민, 중앙, 구덕, 연산)은 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학교와 협력하여 학급 및 독서·진로 동아리를 모집·운영했고, 사하도서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생 진로도서 읽기’ 참여자를 모집하여 꾸준한 독서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한 감상문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우수자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운대도서관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과의 대화’라는 특강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

하거나 선망의 대상인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중앙도서관은 학교현장 및 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특강형식으로 공유했으며, 사하도서관은 ‘내 아이 꿈 찾기 진로코칭 특강’으로 웹툰 작가·진로코칭 전문가를 초청하여 차세대 성장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웹툰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및 부모·자녀 간 소통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연계형 진로탐색을 위한 독서토론, 각종 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독서의 취미와 활동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참여를 통한 실천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특히 진로독서 및 북토크 책을 통한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표 6〉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연계형 '진로독서·토론'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8개관)

구분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운영
진로 독서 토론	시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동아리형'	• 동아리 스스로 목표 설정 후 진로탐색활동(도서관 안내 및 활동공간 지원)	4-12월(1일, 30명 내외)
	중앙	찾아가는 독서교실 프로그램	• 토론이 있는 독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역할극, 카툰 으로 그리는 에세이 등	3-11월(6개교, 30차시)
	구덕	도서관과 함께 행복찾기	• 독서와 표현적 글쓰기	하반기(2개교, 16차시)
	사하	중학생 진로도서 읽기	•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및 감상글 제출 활동, 도서상 품권 증정	4-11월
	연산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책 속 나의 꿈 찾기』	• 나의 씨앗찾기, 나의 브랜드 만들기, 이야기 속 직 업, 다양한 직업군 찾기 등	하반기(1개교, 6차시)
강연 (특강)	해운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과의 대화	• Professional!: 프로의 직업이야기(주변에서 쉽게 접하거나 선망 대상 직업)	올가을
	중앙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 학교현장의 운영사례 / 도서관의 운영사례	11월 8일/15일
	사하	내 아이 꿈 찾기 진로 코칭 특강	• 웹툰작가, 진로코칭 전문가 등	10월(3회)

탐색, 미래직업전문가와의 만남, 도서관 알기 등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학습문화, 지식문화 등을 발전시키고 청소년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친숙과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

3.2.1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부산은 조선조 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군사 및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조선 및 대륙 침략의 교두보가 필요했던 일제는 부산항(당시 초량항)을 강제로 개항하여 조선조 초량왜관(草梁倭館)⁵⁾ 지역의 11만평을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로 설정하고 거류지역소, 영사관, 경찰서, 상업회의소, 금융기관, 병원 등을 설

치했다. 따라서 부산의 원도심(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에는 초량왜관의 약 200년과 일제강점기 때 동래부에서 부산부로 행정중심이 이전한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한국전쟁 때는 임시수도였기 때문에 현대사까지 간직하고 있다.

부산의 원도심 중에서 근현대사 문화유산이 가장 풍부한 지역은 중구인데, 거기에 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시민은 동서남북에서 1시간 30분을 도보로 이동하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어 '근현대사 및 직업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지리적 및 문화유산적 강점을 바탕으로 중앙도서관은 부산 및 중구의 역사를 전승하는 문화해설사⁶⁾를 양성했고, 그들이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2015년 '중학생 진로역사 체험'(8회, 180명 참여), 2016-2017년 '자

5) 일본 사절단과 상인들이 조선에서 외교와 무역기능을 수행하던 곳이다. 임진왜란 후 일본의 지속적인 요구로 1678년(숙종 4년) 용두산 공원과 북병산 일대에 신축·이전하여 일본인 500명 이상이 거주했고, 외교와 무역을 위한 건물이 즐비했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에 따른 부산항 개항 전까지 존속했다가 일본인 전관거류지(Concession)로 바뀌었다.

6) 2014-2015년 기초(20차시)·심화(17차시)·전문가(13차시) 양성과정을 기획·개발하여 중구문화해설사 1기 30명, 2017년 2기 양성과정(기초·심화과정 24차시로 최적화함)에서 32명이 수료했다.

유학기제 진로체험: 청소년, 꿈 찾기 원도심 기행'(2016년 24회, 479명 참여, 2017년 12회 208명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중앙도서관 '중구문화해설사 양성과정' 1·2기 및 독서·진로직업 지도사 14명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장중학교 1학년(학생 190명과 인솔교사 8명)을 대상으로 원도심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진행하기 위해 진로 탐방길 답사 및 안전을 점검한 후 담당교사와 세부 사항을 협의·조율하여 7개 코스를 개발·운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연계형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협력·추진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흔적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행위이므로 역사문화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지역사랑)을 북돋우며, 역사적 교훈 등에 대한 성찰과 각인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육이다. 동시에 역사문화콘텐츠를 진로탐색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거나 설계할 때 유용한 배경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탐색하는 직업의 외연이 문화예술계(영화인, 화가, 작가, 기획자), 도시재생과 환경생태계, 관광·여행계, 컨설턴트, NGO 활동, 문화해설 등으로 확장되어 진로탐색 및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외에도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했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가 <표 8>과 같이 2014년부터 '중구문화해설사 양성과정' 등을 수료한 학습자(경력 단절자, 은퇴자, 구직자, 주부 등)가 공공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로 도서관 기반 지역문화해설사, 청소년진로해설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지역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가 및 관광문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

<표 7> 자유학기제 연계형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중앙도서관)

	교육내용	장소	참여자	
도서관 교육 (40분)	1. 오늘, 이곳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2.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3. 직업의 변화를 상상해볼까요? 4. 21세기 유망직업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5. 부산특화직업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도서관 제1 연수실'과 '광복기념관 강당' 분산 배치	학생 190명·교사 8명 진행강사 14명	
진로 역사 문화 탐방 (90분)	코스	진로역사문화콘텐츠	도서관 밖 역사진로체험 장소	
	1	문화예술 속에서 찾아보는 직업이야기	이중섭거리미술관, 친구의 거리 외	탐색직업
	2	한국전쟁 속에서 찾아보는 직업이야기	임시수도 정부청사(석당박물관), 임시수도 기념관 외	영화 직업, 화가, 작가 등
	3	일상의 문화 속에서 찾아보는 직업이야기	중앙공원, 밀다원, 금수현의 음악살롱 외	교통 관련 직업 변화, 공무원, 교사 등
	4	우리고장 속에서 찾아보는 직업이야기	중구청 관제센터, 보수동책방골목, 국제시장 외	환경생태 관련 직업, 도시재생 관련 직업 등
	5	天地空屋 속에서 찾아보는 직업이야기	옛 기상청, 부산근대역사관, 또따또가 외	디지털보안관리자, 창업 및 물류관리자 등
	6	근현대사 속에서 찾아보는 직업이야기	40계단 문화관, 인쇄골목, 백산기념관 외	기상컨설턴트, 큐레이터, 문화예술기획자 등
7	바람 그리고 변화 속에서 찾아보는 직업이야기	광복기념관, 민주공원, 역사의 디오라마 외	관광·여행개발, 미래교육3D프린팅 운영전문가 등	
		광복기념관, 민주공원, 역사의 디오라마 외	NGO, VR·AR 전문가, 디지털문화재관리사 등	

〈표 8〉 자유학기제 연계형 프로그램의 '일자리 창출 기여' 사례(중앙도서관)

학습자	성별	연령	직업	문화해설사 과정 수료 (2014-2015)	독서지도사 자격 취득 (2015)	문화해설사 과정 수료 (2017)	진로직업지도사 자격 취득 (2018)	자유학기제 강사			
								2015	2016	2017	2018
A	여	64	관광해설사	■	■	-	-	-	■	■	-
B	여	53	교육전문가	■	타 독서지도사	-	타 진로직업지도사	-	-	-	■
B	여	57	직장인	■	■	-	평생교육사	-	■	■	■
D	여	49	주부	■	■	-	직업상담사	■	■	■	■
E	여	59	직장인	■	■	-	■	-	■	■	-
F	여	64	은퇴자	■	-	-	■	-	■	■	■
G	여	51	경력 단절자	-	■	■	타 진로직업지도사	-	■	■	■
H	남	64	은퇴자	-	-	■	전 고교교사	-	-	-	■
I	남	69	지역전문가	-	-	■	■	-	-	-	■
J	여	63	구직자	-	-	■	■	-	-	-	■
K	여	46	도서관 가르치미	-	타 독서지도사	■	-	-	-	-	■
L	여	50	"	-	-	■	■	-	-	-	■
M	여	50	관광해설사	-	-	■	■	-	-	-	■
O	여	53	경력 단절자	-	-	타 교육강사	■	-	-	-	■
P	여	47	도서관 가르치미	-	타 독서지도사	-	■	-	-	-	■
Q	여	43	주부	-	타 독서지도사	-	■	-	-	-	■

3.2.2 사서직 체험 프로그램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제공,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제3의 장소로서의 커뮤니티센터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주도하는 직종이 사서직이다. 그들은 국내외 지식정보에 대한 게이트 키퍼이고, 독서지도 및 평생학습의 전문가이며, 디지털 정보해득력을 위한 교육자이다. 또한 사서는 수집·보존하여 장서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전문직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집단적 기억과 기록을 후대에 전수하는 주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의 사서직 체험은 지식세계와 도서관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이에 주목한 부산지역 4개관(시민, 구포, 부전, 서동)은 〈표 9〉와 같이 사서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내용은 책과 도서관의 역사에서 도서관 탐방과 사서업무(자

료정리 및 도서보수, 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체험, 사서가 되는 방법, 사서자격증을 비롯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제공하는 학과, 사서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채용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미 청소년은 가정 및 학교생활, 과제수행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취급하는 서점, 대여점, 도서관 등에 친숙하다. 또한 일부는 학교도서관 도서부, 도우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에도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에서의 사서직은 '책을 대출하는 사람, 자료실을 지키는 직원' 등으로 인식하는데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류 문명과 도서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대부터 지식정보는 어디에 기록했고 그들은 어떤 형태로 변용되어 왔는지, 왜 지배자들은 끊임없이 책과 도서관을 학살했는지, 디지털과 모바일로 대표되는 지식사회에서도 종이책과 독서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표 9〉 자유학기제 연계형 '사서직 체험' 프로그램(4개관)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운영
시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서 중심 '체험형' - 책과 도서관의 역사, 도서관 이용방법, 사서직 이해와 체험 등	4-12월 (1일, 30명 내외)
구포	도서관에서 나의 꿈 찾기	•사서가 되는 방법, 도서관 자료실 탐방 및 체험활동, 인터뷰 등	4-11월 (9월 현재 98명 신청)
부전	사서의 꿈길을 찾아서	•자료정리·보수, 프로그램 기획 등	4-12월 (사서를 꿈꾸는 중학생)
서동	책 속에서 나의 꿈 찾기	•진로·직업 관련 자료의 활용법, 사서가 하는 일(자료정리, 배열업무 등) 및 체험, 사서자격증 취득 가능 학과, 좋은 사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 사서직 채용 방법 등	상반기 (복지관과 진로체험처로 업무계약하여 진행)

사서는 어떤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지, 사회에서 도서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도서관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학습하고 체험하면 도서관의 정체성과 사서직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인물로 성장할 경우 지역사회에 독서문화, 학습문화, 지식문화 등을 전파하고 숙성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3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

아날로그 시대에는 문자해득력이 유식과 무식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검색, 분석과 평가, 가공과 편집, 입수와 활용을 강조하는 정보해득력(Information Literacy)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것의 대명사인 디지털 해득력은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시대의 생존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존해득력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해득력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회문화적 장치는 공공도서관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산지역의 일부 공공도서관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정보해득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왔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지식정보서비스 중에서 청소년의 진로탐색, 상급학교 진학, 취직 준비, 미래 설계 등을 위한 정보해득력 교육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장 집중적으로 제공한 사례는 〈표 10〉에 집약한 사하도서관의 정보해득력 교육과정인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여행'이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무수한 사회적 장치 중에서 지식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서는 많은 직업 중에서 지식정보에 관한 최고 전문가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정보해득력 교육은 매우 바람직하며 지식문화 조성에도 기여한다. 다만 일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도서관의 필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 내용 또한 도서관의 서지 DB인 OPAC 검색, 인터넷 접근과 검색, 웹DB(전자책, 전자잡지 등) 이용,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정보기기 조작, 저작권법 이해,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확대하여 정보해득력을 제고시켜야 한다(윤희윤 2015, 10: 2017, 48). 그렇게 될

〈표 10〉 자유학기제 연계형 ‘정보해득력 교육’ 과정(사하도서관)

교육과정	주요 내용
1. 정보요구(주제 정하기)	• 교육매체(동영상, 사진 등) 개발과 도서관 역사와 가치, 지역(특성화) 도서관 소개 • 도서관 이용법(한국십진분류법, 도서관맵, 자료검색법, 링크자원 활용법 등) 교육 • 직업십진분류, 도입 가능한 해외직업 등을 기반으로 진로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2. 정보원 결정하기	• 사서, 도서관 자료실, 인터넷자원 등 정보 소장처 결정
3. 정보탐색 전략 세우기	• 정보의 상하위 개념 및 어휘조합 등으로 탐색 전략 수립
4. 정보검색하기	• 탐색 전략에 기반한 정보검색과 추출
5. 정보평가하기	• 신뢰성, 최신성 등을 기반으로 입수한 정보의 유용성 평가
6. 정보이용 및 표현하기	•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에 고려한 정보 인용 및 표현법 학습

때 자유학기제의 요체인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지식정보 활용능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내지 디지털 정보문화를 견인하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

3.4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지역발전 기여

도서관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그것이 청소년의 진로교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 공공도서관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직접적 편익가치와 가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때 확대를 주장할 수 있고, 본질적 정체성인 지식정보센터와 사회적 정체성인 문화학습 거점 및 제3의 장소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지역문화(「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의 유형을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

활문화, 여가·관광문화’로 세분하여 공공도서관 지역문화발전과의 관계를 정리한 선행연구(윤희운 2015, 6)의 틀에 지역경제를 추가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면 〈표 11〉과 같다.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이 제공한 ‘진로·직업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진로탐방·체험 프로그램 중 역사문화 탐방은 여가(관광)문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반면에,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중 강연·전시와 직업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는 여가문화 및 지역경제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공공도서관이 수집·보존·전수하는 지식정보는 청소년의 지적 탐구와 대화, 독서문화, 학습문화를 아우르는 지식문화 창출의 핵심인자다. 그것을 기반으로 저변이 확대된 지식문화에 여가문화가 추가되면 지역문화로 격상되고, 그것은 지역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에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개설, 학습·토론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지식문화 창출, 지역

〈표 11〉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지역발전 기여도

구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역발전 기여도					
		지식	독서	학습	생활	여가	경제
진로 직업 탐색	도서목록·서평집 배포, 전시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도서목록' 자료집 배포(시민) • 도서관에서 나의 꿈 찾기: '청소년 진로직업 도서 목록' 배포(구포) • 진로탐색 도서 전시회: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진로탐색도서 107종(반송) •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도서 전시회: 직업소개도서 30종 서평(명장)	□	□	□	△	×	×
	진로독서토론 (북토크)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자율 '동아리행' - 도서관 안내와 공간 지원(시민) • 찾아가는 독서교실 프로그램: 토론이 있는 독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역할극...(중앙) • 도서관과 함께 행복찾기!: 독서와 표현적 글쓰기...(구덕) • 중학생 진로 도서 읽기: 온라인 독서활동(사하) •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책속 나의 씨앗 찾기, 나의 브랜드 만들기, 이야기 속 직업·직업군 찾기...(연산)	□	□	□	□	×	×
	강연(특강) •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학교·도서관 자유학기제 사례(중앙) •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과의 대화: Professional! 프로의 직업이야기(해운대) • 내 아이 꿈 찾기 진로코칭 특강: 웹툰작가, 진로코칭 전문가(사하)	□	□	△	□	△	△
진로 탐방 체험	역사문화 탐방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청소년, 꿈찾기 원도심 기행(중앙)	□	□	△	□	□	□
	사서직 체험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서 중심 '체험형' - 책과 도서관의 역사, 도서관 이용방법, 사서직 이해와 체험 등(시민) • 도서관에서 나의 꿈 찾기: 사서가 되는 방법, 도서관 자료실 탐방 및 체험활동, 인터뷰 등(구포) • 사서의 꿈길을 찾아서: 자료정리·보수, 프로그램 기획 등(부전) • 책 속에서 나의 꿈 찾기: 진로·직업 관련 자료의 활용법, 사서가 하는 일 및 체험, 사서자격증 취득 가능 학과, 좋은사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 사서직 채용 방법 등(서동)	□	△	□	□	△	△
정보해득력 제고		□	□	□	□	△	△

□ 우수, △ 보통, × 무관

문화 조성,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청소년 진로탐색과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이렇게 단언하는 근거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에 유용한 도서목록, 진로독서와 북토크, 전문가 강연, 도서 전시회, 역사문화 탐방, 직업체험, 정보해득력 등을 제공할 경우,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준비하고 가까운 장래에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부상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이

다. 다만, 독서와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에 못지않게 지식생태계 구조, 디지털 정보격차, 사회문제 및 인문치유, 지구촌 환경문제, 미래 직업상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세계관을 지역사회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 및

수업개선에 목적이 있다. 전자에 방점을 둔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왔다. 그 대상을 부산지역 사례로 한정·분석한 후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논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 이래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센터, 문화활동 거점, 평생학습 산실, 사회적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가운데 세대별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자유학기제 기반의 지식정보서비스 및 진로관련 프로그램은 그들의 지식정보 습득, 독서활동, 진로탐색과 체험, 취업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다.

둘째,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도서목록 및 서평집 배포, 독서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지역 역사문화 탐방, 사서직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으로 대별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도서목록 및 서평집 배포(4개관)는 독서진로 탐색 및 독서문화 조성에, 독서프로그램과 각종 행사(8개관)는 독서활동 진작과 실천성에 기여했다. 진로탐색과 역사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1개관)은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 진로탐색의 외연을 문화예술계, 환경생태계, 관광여행계, NGO 활동, 문화해설 등으로 확장하고 도서관 기반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문화해설사, 청소년진로해설사 등)에, 사서직 체험(4개관)은 지식정보 게이트 키퍼, 독서지도 및 평생학습 전문가,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정보해득력 프로그램(1개관)은 진로탐색을 위한 지식정보 활용 능력 제고와 지식문화 조성에도 유용했다.

셋째, 모든 지식정보는 독서문화와 학습문화를 아우르는 지식문화를 창출하는 핵심인자다. 그것에 여가문화가 추가되면 지역문화로 격상되고, 지역 경쟁력 및 지역발전에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개설, 학습·토론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지식문화 창출, 지역문화 조성,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논지로 보면 자유학기제 기반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에 기여했고, 진로탐방·체험 연계형 프로그램 중 역사문화탐방은 여가(관광)문화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는 반면,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중 강연·전시와 직업체험, 정보해득력 제고는 여가문화와 지역경제에 제한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디지털 세계, 모바일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도서관이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을 필수로 제공해야 하며, 내용도 OPAC 검색, 인터넷 및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웹DB(전자책, 전자잡지 등) 이용을 넘어 저작권법 이해,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독서와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에 못지않게 지식 생태계 구조, 디지털 정보격차, 인문치유, 사회 환경 문제, 미래 직업상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권은경. 2017.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49-76.
- [2] 김나라, 최지원. 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 [3] 노영희, 김혜인. 2016.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서관의 역할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93-122.
- [4]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5] 윤희운.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20.
- [6] 윤희운. 2017. 『공공도서관정론』. 대구: 태일사.
- [7] 이재희. 2016. 공공도서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부천시립원미도서관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82: 86-105.
- [8] 임미화. 2014. 꿈과 끼를 키우는 공공도서관의 진로독서교육: 정독도서관 독서토론프로그램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73: 29-55.
- [9] 한국도서관협회. 2017-2018.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동협회.
- [10] 한국도서관협회 2018.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지원대상도서관 선정 공고문(2018. 05. 03). [online] [인용 2018. 10. 31.] <<https://www.libraryonroad.kr/>>
- [11] 황금숙, 김수경. 2016. 자유학기제를 위한 도서관기반 독서문화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99-128.
- [12] Joanna, Sin Sei-Ching and Vakkari Pertti. 2015. "Perceived Outcom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U.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7(3): 209-219.
- [13] Marino, Mina Di and Kimmo Lapintie. 2015. "Libraries as Transitory Workspaces and Spatial Incubator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7(2): 118-12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on, Eun-Kyung. 2017. "A Study on Effective Counterplan of Library to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49-76.
- [2] Kim, Nara and Choi, Jiwon. 2014.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Free Learning Semester through Foreign Cases Analysis based on Ireland, Denmark, Sweden, and United Kingdom."

-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3): 199-223.
- [3] Noh, Young Hee and Kim, Hye In. 2016.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Libraries' Role by Using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93-122.
- [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Sejong: MCST.
- [5] Yoon, Hee Yoon. 2015.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20.
- [6] Yoon, Hee Yoon. 2017. *Public Library: Axiom & Sound Argument*. Daegu: Taelisa.
- [7] Yi, Jaehee. 2016. "Analysis of Public Library Programs about Adolescent Career Search -Mainly the Case of Bucheoncity Wonmi Public Library." *Digital library*, 82: 86-105.
- [8] Lim, Mi Hwa. 2014. "The Public Library's Career-searching Reading Education, which Cultivates One's Dreams and Talents: Focused on the Jeongdok Public Library's Reading Discussion Program." *Digital library*, 73: 29-55.
- [9]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7-2018. *Report on Humanities Projects on the Road*. Seoul: KLA.
- [10]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8. Humanities Projects on the Road(2018. 05. 03). [online] [cited 2018. 10. 31.] <<https://www.libraryonroad.kr/>>
- [11] Hoang, Gum-Sook and Kim, Soo Kyoung. 2016. "A Study on Developing Model of Reading Culture Program in Public Library for Free-semest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3): 99-128.